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 다람쥐와 청설모	즐거움을 주는 숲 속의 재간둥이
6. 다람쥐와 청설모	<p>여러분 도토리하면 생각나는 동물은 무엇이 있나요? 네~맞습니다. 갈색의 작고, 앙증맞은 다람쥐와 색깔이 까맣기 때문에 조금은 무서운 청설모가 있습니다. 이 곳 남창계곡은 다람쥐와 청설모가 좋아하는 도토리, 밤이 맺히는 참나무 종류와 밤나무 등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람쥐와 청설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와 청설모는 다람쥐과에 속하며,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다람쥐와 청설모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으며, 먹이의 종류도 서로 비슷합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겉모습의 차이입니다. 다람쥐는 갈색 털과 등에 줄무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설모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털에 배 부분은 하얀 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주로 땅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위험이 닥치거나 먹이를 찾을 때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 위에서도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설모는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생활합니다. 다람쥐와 청설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고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참나무 종류나 다른 큰 나무 구멍에 집을 만들고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하지만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두꺼운 털로 겨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에 덮힌 청설모는 봤어도 다람쥐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다람쥐와 청설모는 숲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p>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도토리, 밤, 다래, 개암 등 나무의 열매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리가 없는 나무에게는 다람쥐나 청설모, 새 등을 통해서 종족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이곳저곳에 먹이를 숨겨둡니다. 하지만 건망증이 심해서 전부 찾아 먹지 못해 바위틈이나 땅속에 잘 숨겨진 도토리나 밤은 최적은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람쥐나 청설모가 도토리나 밤을 더 많이 숨길 수 있도록 나무 열매를 주워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람쥐와 청설모의 고마움을 마음에 담아 동요 한 곡 부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산꼴딱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재주나 한번 넘으렴~ 팔~짝 팔짝 팔짝 날도 참말 좋구나~”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주요용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증맞은 생김새와 다람쥐과의 동물들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람쥐 : 암수 모두 색깔과 모양이 같고, 몸길이는 14~18센티미터, 꼬리 길이는 9.3~13.2센티미터이며, 몸무게는 80~90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 청설모 : 등에는 부드럽고 짧은 담황생의 털이 나 있습니다. 머리는 황갈색이고, 배와 앞다리의 안쪽은 희며, 귀 끝에는 약 3센티미터 길이의 털이 나 있습니다. 몸통 길이는 25센티미터이며, 꼬리의 길이는 21센티미터나 됩니다. 몸무게는 300그램 정도입니다. ○ 다람쥐과의 동물들은 젖먹이동물 중에서도 종류가 가장 많은 쥐목에 속합니다. 쥐목의 동물들은 대체로 이빨이 계속하여 자라나기 때문에 나무를 쏘거나 딱딱한 열매를 먹어 이빨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크기는 대개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비교적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멧밭쥐와 같은 종은 15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쥐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근처에 사는 큰 것은 몸길이가 45센티미터, 몸무게가 1킬로그램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쥐목 가운데 다람쥐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그 분포가 매우 넓습니다. 북극, 남극, 마다가스카르섬,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의 여러 섬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람쥐, 청설모, 하늘다람쥐, 날다람쥐 4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날다람쥐는 1923년 서울의 어느 모피상에서 모피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을 뿐, 그 뒤로 정확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람쥐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몸놀림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밤보다는 낮에 활동하는 종류가 많고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땅으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만주 지방이나 캘리포니아 지방에 살고 있는 들다람쥐들은 땅 속에 굴을 뚫고 생활하며, 낮에 주로 활동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날다람쥐는 숲 속에서 살고 있으며, 나무 구멍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밤에만 활동하며,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비막을 이용하여 날아다닙니다. 다람쥐들은 딱딱한 열매, 나무껍질, 어린 싹 같은 것을 즐겨 먹으며, 새의 알과 새끼 또는 곤충들을 잘 잡아 먹습니다. 늦은 가을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먹이를 저장하여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온대나 한대 지방에 살고 있는 다람쥐들은 겨울잠을 자는데, 더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종류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우한정, 여동완(1980), 한국의자연탐험 다람쥐와 청설모, 웅진닷컴.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주요용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람쥐과 동물들의 집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람쥐의 굴 : 다람쥐는 졸참나무, 서어나무, 까치박달나무, 잣나무 따위가 무성하고, 주름조개풀이나 뱀고사리, 은방울 꽃 따위의 식물들이 땅을 덮고 있는 지역에 굴을 만듭니다. 굴의 길이는 40~227센티미터이고, 굴의 깊이는 15~82센티미터인데, 여름철의 굴보다 겨울철의 굴이 더 깊습니다. 굴의 경사는 약 15~35도이며, 대개 동북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 청설모의 둥지 : 청설모는 큰 나무 줄기 또는 나뭇가지 사이에 마른 나뭇가지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 모양은 까치의 보금자리와 비슷하지만 까치집보다는 작습니다. 보금자리를 드나드는 구멍은 둥지의 아래쪽에 만들며, 출입구는 남쪽 또는 동남쪽, 동쪽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 날다람쥐의 둥지 : 날다람쥐는 따뜻한 둥지를 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대림이나 높은 산의 숲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면 나무에 생긴 구멍입니다. 날다람쥐도 다른 작은 동물들처럼 이 빈 공간을 집으로 씁니다. 나무 구멍은 대개 딱따구리가 나무속에 숨은 벌레를 잡기 위하여 뚫어 놓은 구멍입니다. 이러한 구멍은 날다람쥐에게는 비좁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멍을 끌처럼 생긴 앞니로 물어뜯어 지름 25~30센티미터 정도의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다람쥐는 낙엽, 이끼, 나무껍질

	<p>등을 사용해 방을 꾸밉니다. 이들 재료는 바깥의 찬 기운을 막아 주고 등지 안의 따뜻한 기운을 빼앗기지 않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커서 맞지 않고, 구멍 안을 효과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다람쥐는 이것들을 앞발로 잡고 앞니로 찢어 기다란 실 모양으로 만듭니다. 특히 나무껍질을 실같이 부드럽고 가느다랗게 찢어 바닥에 깔고 잠자는 방을 만듭니다.</p> <p>○ 하늘다람쥐의 등지 : 하늘다람쥐는 상수리나무와 잣나무가 섞여 있는 숲이나 순수한 침엽수림, 특히 잣나무 숲에서 혼자 또는 두 마리씩 생활합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살기 때문에 등지도 나무의 빈 구멍 같은 곳에 짓습니다. 그러나 하늘다람쥐는 다람쥐나 청설모와는 달리, 항상 나무의 빈 구멍 속에 나무껍질이나 나무 부스러기를 모아 넣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낮 동안에는 등지에서 등을 구부리고 납작한 꼬리로 온몸을 덮고 낮잠을 자다가 해질 무렵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p>
<p>참고문헌 및 출 처</p>	<p>우한정, 여동완(1980), 한국의자연탐험 다람쥐와 청설모, 웅진닷컴.</p>